10.15686/fkl.2025..65.196 OPEN ACCESS

자기이론, 교차성 페미니즘의 예술적 실천

한경희
한국학중앙연구원 태학사 과정생

목차

1 ‘자기이론’이란 무엇인가
2 ‘자기이론’의 정치성
3 ‘자기이론’의 다양성
4 ‘자기이론’의 적용 가능성

1 ‘자기이론’이란 무엇인가

로런 포니에의 저서『자기이론-자기의 삶으로 작업하기』(마티, 2025)가 지향하는 바는 뚜렷하다. 저자 로런 포니에는 ‘자기이론(autotheory)’이라는 용어를 예술 비평의 공식 개념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지니고 이 책을 저술했다. 저자는 2000년을 전후한 시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시대 예술, 영화, 비디오, 시각 문화와 이론, 페미니즘과 젠더연구, 문학 연구 사이에서 ‘자서전’을 ‘철학’ 및 ‘이론’과 통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자기이론’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함으로써, ‘자기이론’을 예술 비평의 공식 개념으로 등록시키고자 한다. 이로써 저자는 동시대 문화 생산에 나타나는 특정 경향을 유의미한 것으로 포착할 뿐 아니라, 과거에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던 예술적 실천들을 재조명하고 그에 합당한 의의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자기이론’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자기이론’이 단순히 1인칭 시점의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쓰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자기이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자기이론적인 충동은 명백히 **주관적이고 신체화된 누군가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철학을 하고 이론을 하려는 다음의 충동**을 포함한다. 일종의 이론가나 철학자로서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프로세싱하기, 자신의 자기와 삶을 이론 및 철학과 연관해서 이해하기, 그리고 자기를 작품-회화든 글이든 영화든 다른 무엇이든-을 만드는 실천의 일부로 이해하기. 자기이론적 실천들이 다종다기하고 복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론적 작업의 몸체나 예술가나 작가가 자기 작업에 사용하는 철학의 특정 양태와 전통은 작업의 내부적 맥락과 그들 자신의 비판적 감수성에 따라 달라진다.[1]

1 로런 포니에, 양효실·김수영·김미라·문예지·최민지 옮김,『자기이론-자기의 삶으로 작업하기』, 마티, 2025, 99쪽.

문학연구·문화연구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자기이론'이 무엇인지 좀 더 이해를 쉽게 해보자면, 몇 년 전 한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캐시 박 홍의『마이너 필링스』(마티, 2021), 일라이 클레어의『망명과 자긍심』(현실문화, 2020), 디디에 에리봉의『랭스로 되돌아가다』(문학과지성사, 2021)를 '자기이론'을 실천한 사례로서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들은 한국에서 각각 '한국계 미국인 여성', '노동계급 출신 레즈비언 장애인 시인', '노동계급 출신 게이 남성 지식인'이라는 소수자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쓰인 자기서사로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책들은 단순히 소수자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삶에서 어떠한 고충을 겪어왔는지 회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로런 포니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책의 저자들은 "자신의 자기와 삶을 이론 및 철학과 연관해서 이해"(99쪽)하는 방식으로 '자기이론'을 실천함으로써, 인종·젠더·계급·지역·섹슈얼리티와 같은 범주들이 상호교차하여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적 억압이 한 구체적 개인으로서의 자기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래서 자신의 '자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 점에서 이 저자들에게 있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구별되지 않는다.

2 '자기이론'의 정치성

'자기이론'은 자기 자신 및 자신의 삶을 비판적 관심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사회구조적 차원 그 자체를 조망하는 실천이다. 그렇기에 '자기이론'은 '보편과 특수', '객관과 주관', '사회와 개인', '공과 사'와 같은 이분법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한 방도가 된다. 이는 저자 로런 포니에가 '자기이론'이 페미니즘에 깊이 뿌리 박고 있으며 그 실천이 페미니즘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을 일관되게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페미니즘은 젠더에 기반한 착취와 억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현실에 대응하며 그 이론적 기반을 구성해왔다. 이에 페미니즘은 '개인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에 가닿을 수 있는 분석 대상으로서 중시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편과 특수', '객관과 주관', '사회와 개인', '공과 사'와 같은 이분법이 사실 특정 신체를 표준화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

는 신체들을 배제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었음을 밝혔으며 이로써 이와 같은 이분법들을 해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바 있다. 다시 말해, 페미니즘은 보편성에 대한 기준이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인 신체성에 기반해 있음을 밝힘으로써, 여성을 비롯하여 신체성에 의해 과잉 결정되어왔던 이들로 하여금 '철학'과 '이론'처럼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체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점에서 "주관적이고 신체화된 누군가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철학을 하고 이론을 하려는 것"(99쪽)이라는 '자기이론'의 일차적 정의는, 그 자체로 페미니즘의 기획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나는 '자기이론'이 정체성 정치의 급진적 면모가 잘 드러나는 예술적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종종 정체성 정치는 피해자 지위에 집착하면서 소수자 정체성을 본질화하며 인정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오해되곤 한다. 그리고 실제로 정체성 정치의 실천이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이 때문에 저자 로런 포니에 또한 자신의 저서에서 정체성 정치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기이론'이 2010년대 후반 이후 급부상한 용어라는 사실에서도 시사되듯이, '자기이론'은 전세계적인 정체성 정치의 활황으로부터 비롯된 예술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로런 포니에가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듯이, 인종·민족·젠더·섹슈얼리티·장애 등에 있어 '특수한' 정체성을 가졌다고 상정되는 이들, 이로 인해 열등한 존재, 비정상적 존재, 일탈적 존재로 낙인찍히고 소외되며 주변화된 소수자적 존재들은 다만 자신이 피해자임을 호소하며 권력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다. 세간의 오해와 달리 이들은 소수자로서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위치를 사회구조적 억압을 분석하는 거점으로 삼고, 자신을 '중심'으로 구성하기 위해 타인을 '주변'으로 만들고, 자신이 '보편'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특수'로 취급하는 논리들을 효과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즉 소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본질이 아니라 정치적 위치로 전제하고 '철학'과 '이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참여한다. 이 점에서 나는 '자기이론'이 정체성 정치의 본령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책은 정체성 정치에 대한 오해와 논란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인 듯, 정체성 정치라는 용어 대신에 교차성 혹은 교차성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통해 '자

기이론’의 정치성을 설명하고 있다. 교차성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체성이란 본디 서로 맞물려 있는 억압 체계 내에서 ‘다중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동시적 억압에 대항하는 정치 운동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3 ‘자기이론’의 다양성

앞서 ‘자기이론’이란 무엇인지 정의하는 인용문에서도 “예술가나 작가가 자기 작업에 사용하는 철학의 특정 양태와 전통은 작업의 내부적 맥락과 그들 자신의 비판적 감수성에 따라 달라진다”(99쪽)라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듯, 저자 로런 포니에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자기이론’을 실천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철학’ 및 ‘이론’의 종류에 한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학’ 및 ‘이론’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무궁무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의 본론인 1-5장은 그러한 사례들 중 유의미한 것들을 모아 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장에서는 미국의 개념미술가 에이드리언 파이퍼가 1970년대 뉴욕에서 행한 퍼포먼스 〈영혼을 위한 음식〉을 ‘자기이론’을 실천한 선구적 사례로서 소개한다. 이 사례에서 ‘자기’는 모더니즘 형식주의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1970년대 미국 예술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흑인 여성 예술가 파이퍼이며, ‘이론’은 칸트의 철학으로 설정된다. 로런 포니에는 파이퍼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철학 즉 ‘신체’가 없는 철학을 자신의 몸 안으로 “신진대사”(116쪽)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보편성과 특수성 혹은 주관성과 객관성 사이의 긴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2장에서는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된 대학 제도에 어느 정도 구속되어 살아가는 동시대 예술가들이 ‘자기’로, 그러한 억압적 구조를 떠받치는 지식 체계가 ‘이론’으로 설정된다. 이 예술가들은 ‘이론’이 지배 권력의 문화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권력 없는 약자로서의 위치에서 비판함으로써 ‘자기이론’을 실천한다. 3장에서 ‘자기’는 퀴어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자서전이나 회고록으로 쓰면서 성찰하고자 하는 이들이며, ‘이론’은 퀴어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쓴 또 다른 예술가나 철학가들의 정전으로 설정된다. 그 대표적 사례가 넬슨의 『아르고호의 선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넬슨은 인용이라는 형식을 통

해 퀴어로서 자신의 개인적 삶을 또 다른 퀴어 예술가 및 철학가들의 삶과 연계시키고 이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퀴어 사이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자기이론'을 실천한다. 4장에서는 교차성 페미니즘을 예술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소수자 예술가들이 '자기'로, 이들의 작업에 자양분을 공급한 책들이 '이론'으로 설정된다. 이 예술가들은 이론이 소수자들에게 있어 사회의 억압에 대항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자신의 작업을 통해 강조함으로써 '자기이론'을 실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학계와 예술계 내의 권력 역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자기'로, 그리고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젠더화되고 인종화되고 성화된 지식과 담론이 '이론'으로 제시된다. 크라우스의 『아이 러브 딕』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크라우스는 자신의 실제 삶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이 소설에서 지식과 담론에 있어 권력을 잡고 있던 남성들의 허위와 위선을 폭로함으로써 '자기이론'을 실천한다.

이처럼 '자기이론'의 실천에 있어 '자기'가 대체로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이 혹은 사회적 약자로 설정되는 반면, '자기'와 결합되거나 매개되는 '철학'과 '이론'은 칸트의 근대 철학에서부터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문학 정전, 권력 역학이 작용하는 학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이에 '자기이론'으로 지칭될 수 있는 예술적 실천들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그 정치적 특성 및 미학적 특성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

4 '자기이론'의 적용 가능성

로런 포니에의 저서 『자기이론-자기의 삶으로 작업하기』는 2010년대 중후반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의 문학 및 예술에서 나타난 창작의 변화 및 정치적·윤리적 감각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는 한국현대문학 및 여성문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자기이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과거 페미니스트들의 예술적 실천들을 재조명해보면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예를 들어, 나혜석이나 김명순이 쓴 자전적 소설이나 수필들이 여성 작가인 이들에게 있어 자신들을 소외시키는 담론장에 개입하고 대결하는 한 방도였음을 구명한다거나, 최정희가 실제 남성 인물이 누

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소설을 쓰는 것을 '폭로'의 관점에서 설명한다거나, 박완서가 '또 하나의 문화'에서 활동하며 창작한 〈성차별을 주제로 한 자서전〉과 같은 수필을 '자기이론'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분석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서술이 다소 번잡하고 장황하여 읽는 데 품은 좀 들지만, 동시대 문학 및 예술의 경향을 '자기이론'이라는 개념 하나로 꿰뚫는 저자의 안목과 분석력은 감탄할 만하다. 교차성 페미니즘 및 퀴어 정치에 기반한 예술적 실천 혹은 소수자 정체성에 기반한 예술적 실천에 관심이 있다면, 혹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문학과 예술 창작 및 감상에 있어서의 윤리적 태도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이 유용한 인사이트를 여럿 제공해줄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다.